

협회를 신명나는 일터로 만들겠습니다

대한산업보건협회 교육홍보이사 / **최인백**



저는 지난 30여 년 동안 노동 구조 문제와 해묵은 제도, 관행들에 대한 개선, 더 많은 더 좋은 일자리 창출과 고용안정, 그리고 노사관계의 생산적 발전방안 등을 위해 현장에서 일해 왔습니다.

오랜 현장 생활을 뒤로 하고 작년 12월부터는 대한산업보건협회에 몸담고 있습니다.

지금은 무엇보다 '양질의 일자리'가 중요한 시점입니다. 양질의 일자리 기준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그 중 핵심은 '산업보건'입니다. '사람 나고 일 낫지 일 나고 사람나진 않았'다는 저의 믿음에 비추어 봐도 그렇습니다. '사람이 우선'입니다.

대한산업보건협회는 '건강보호·증진, 삶의 질 향상'이라는 미션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양질의 일자리'의 최종 목적지가 바로 '삶의 질'입니다. 근로자가 생산현장에서 '주도적'이 아닌 부속물로 전락한다면 개인 행복도, 경제 성장도, 국가 발전도 뜬구름 잡는 얘기입니다.

근로자가 일하는 기쁨을 느끼며 행복한 일터를 만들기 위해서는 노사의 책임 있는 참여와 상호 협력할 수 있는 공감대 형성이 중요합니다. 그래야 '양질의 일자리'가 늘어납니다. 한 발 더 나아가 '삶의 질'도 달성할 수 있습니다. 그 바탕에는 근로자를 중심에 둔 '산업보건'이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대한산업보건협회는

첫째, 산업보건사업의 내실을 다져 탄탄한 미래를 준비하며,

둘째, 창의적이고 열정적인 산업보건 활동을 통해 고객과 협회 직원 모두 만족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모색하고,

셋째, 사업장 및 산업보건 관련 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함으로써 상생발전을 도모할 것입니다.

아울러, 100세 시대에 걸맞게, ‘양질의 일자리’에서 더 오래 건강하게 당당하게 일할 수 있는 노동시장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또한 취약계층에게 산업보건의 혜택과 기회를 마련해 주는 ‘맞춤형 연계서비스’를 강화하는 한편, 다양한 사회서비스 요구도 충족시키겠습니다.

이러한 비전의 실현을 위해 제가 앞장서서 부서 간, 본부와 센터 간, 정부와 민간 간 정책협의·조정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무엇보다 근로자들의 소중한 생명을 지키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소중한 인적자원이 손실되지 않도록 재해예방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여기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노와 사의 책임 있는 참여와 협력 없이는 ‘양질의 일자리’를 늘릴 수도 질을 개선할 수도 없습니다. ‘산업보건’도 마찬가지입니다. 노·사 모두 사회적 책임을 가지고 열린 마음으로 소통해야 합니다. 그리고 산업보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노·사 간, 노·사·정 간, 아니 더 나아가 사회 각계각층 간의 상생의 협력관계가 필요합니다.

지금 사회는 ‘산업보건’에 대한 기대와 요구가 그 어느 때보다도 절실합니다. 한편에서는 혁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산업보건에 대한 구조적 문제들에 대한 슬기로운 해법도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원칙 있는 행동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저 자신부터 있는 힘껏 협회 임직원과 관계기관 분들을 뒷바라지하고, 함께 고민하고 소통하겠습니다. 과거의 관행에 얽매이지 않겠습니다. 열린 마음으로 세심하게 살피겠습니다. 현장의 목소리도 귀담아 들겠습니다. 또한 협회를 신명나는 일터로 만들겠습니다.

‘희망의 시대’를 활짝 열기위해 저 자신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기쁨을 함께 나누고 뚜렷한 목표를 가지고 나아간다면 우리는 해낼 수 있습니다. ☺